

<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현대미술 강좌』>

11. 누보 레알리즘(Nouveau Réalisme/New Realism)

- 시기: 1960-70년대
- 주요작가: 이브 클라인(Yves Klein 1928-62)
장 텡겔리(Jean Tinguely 1925-91)
아르망(Arman 1928-)
니키 드 상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크리스토(Christo 1935-)등

1. 시대적 배경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50년대 초반까지 맹활약하던 전후 1세대 화가들의 앵포르멜(L'Art Informel) 계열 회화가 쇠퇴하기 시작. 앵포르멜은 생동감을 잃으면서 스타일에만 집착하는 매너리즘에 빠짐. 이에 전후 2세대 미술가들은 회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재료를 미술에 끌어들이므로써 미술과 삶의 통합을 꾀하는 다다의 반미학 정신을 부활시켜 자신들이 당면한 도시 현실을 미술에서 보여주고자 함. 이것이 누보 레알리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배경. 이러한 의미에서 누보 레알리즘은 미국의 네오 다다(Neo Dada)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

2. 누보 레알리즘이란?

누보 레알리즘은 영어의 New Realism에 해당. 즉 '신현실주의'를 의미. 1960년 4월, 밀라노의 한 갤러리에서 프랑스 미술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1930-2003)가 "누보 레알리즘 구조 선언문" 발표. 이 선언문에서 "누보 레알리즘은 현실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들"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현실을 논쟁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다"는 뜻을 밝힘. 이어 같은 해 6월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현실은 허구를 능가한다"는 표어를 내걸고서 '파리-뉴욕 누보레알리즘'展 개최. 이 전시에 미국의 '네오 다다' 운동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로버트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등 미국 작가도 참여. 이후 1970년 밀라노에서 열린 전시를 마지막으로 누보 레알리즘 운동 종식.

3. 주요작가의 작품

이브 클라인(Yves Klein 1928-62)

- 누보 레알리즘의 대표 작가. 레스타니와 함께 누보 레알리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 비물질적 미술 활동 추구
- 자신만의 푸른색 창조(International Klein Blue, IKB)
- 퍼포먼스와 회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퍼포먼스 회화 발표

장 텡겔리(Jean Tinguely 1925-91)

스위스 출신의 화가이면서 조각가. 기계 부품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움직이는 조각으로 유명. 움직이는 모빌을 창안한 미국 작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와 함께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움직이는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누보 레알리즘 운동에 가담.

니키 드 상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프랑스 출신 화가이면서 조각가.

Nanas라 이름 붙인 여성 형상의 컬러풀하고 유머러스한 조각으로 유명.

아르망(Arman 1928-)

프랑스 출신의 미국 국적 미술가.

피에르 레스타니, 이브 클라인과 더불어 누보 레알리즘 형성에 주요 역할 담당.

기계부품에서부터 약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을 새롭게 조합하는 조각으로 유명. 특히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등 악기를 이용한 조각, 가구 등이 대표적.

크리스토(Christo 1935-)

불가리아 출신의 미술가.

누보 레알리즘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활동한 이후 나중에 가담.

공업용 드럼통을 이용한 벽 설치에서부터 자전거, 세면기 등 일상생활용품을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초기 작업이 누보 레알리즘 시기에 해당.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

공공건물이나 다리를 천으로 감싸거나 자연으로 나가 지형의 모습에 변화를 꾀하는 작업들로 유명.

-알리는 글-

마지막 강의날인 **6월 23일**에는 강의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14회와 15회가 연달아 진행됩니다.